

제5강

속죄제 (חַטָּאת, 하타트)

표적을 빗나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흔히 두려운 심판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속죄제는 죄인을 절망 속에 가두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표적을 빗나간 영혼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회복의 제사입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한 영혼이”

“누구든지 여호와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 레위기 4장 2절

NEPHESH · נֶפֶשׁ

한 영혼

곧, 한 사람의 전 존재

생명

인격

생각과 의지

한글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네페쉬(נֶפֶשׁ)라고 표현합니다. 네페쉬는 단순히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명, 인격, 생각과 의지, 곧 한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TWO WORDS · ONE PERSON

두 제사가 바라보는 인간

01

속죄제 · 한 영혼

נֶפֶשׁ

네페쉬

본문에서 네페쉬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몸으로 지은 죄가 결국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의지를 담당하는 영혼, 네페쉬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02

번제 · 존귀한 인간

אָדָם

아담

이에 비해 번제 규정에서는 “누구든지”라는 자리에 아담(אָדָם)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 레위기 1장 2절

IMAGO DEI · 하나님의 형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인간의 존엄한 사명을 보여주고, 속죄제는 그 사명에서 벗어난 연약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줍니다.

실수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 레위기 4장 2절

본문의 “그릇”은 히브리어 “비쉬가”로, “부지중에”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는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반역한 죄보다 모르고 실수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범한 죄를 주로 다룹니다.



?

그렇다면 고의가
아니었으니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지중에’는 단순한 정보 부족만이 아니라,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영적 방심과 태만**을 포함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수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살피게 합니다.

SPIRITUAL SELF-CHECK

실수 뒤의
배경을
돌아봅니다

01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진 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02

작은 타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KEY TAKEAWAY

대부분의 실수는 아무 배경 없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의 무관심과 방심, 잘못된 습관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의 해석과 공동체의 책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 레위기 4장 3절



INTERPRETATION

한 사람의
해석이
공동체의 길이
됩니다



TWO VIEWS

여기서 제사장의 죄를 개인적인 실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Tim Hegg, p.29).
한편 랍비 히르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하여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경우로 봅니다(Hirsch, pp.110 - 113).

말씀을 맡은 책임

해석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그 결과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따른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연구와 기도,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이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는 지식뿐 아니라 두려움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
겸손

“백성의 허물이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 레위기 4장 3절

HEBREW KEYWORD

אָשָׁם

아삼 허물

아삼(허물)은 죄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책임의 흐름 잘못된 해석이 공동체의 죄책으로 이어짐

아삼과 구별할 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거역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 에베소서 2장 1절

젊지만 성숙한 수송아지

성숙함과 새롭게 배우는 마음



대제사장이 드리는 수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르 벤 바카르라고
합니다.

파르: 수소

벤: 아들

바카르: 소 떼, 소 가족

힘 + 성숙함

귀한 제물의 두 가지 모습

2

년이 지나고

3

년이 되기 전

이 표현은 충분히 자랐지만 아직 늙지 않은 젊은
수소를 가리킵니다. 태어난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지 않은, 힘과 성숙함을 함께 지닌 귀한
제물이었습니다(Mishnah Parah 1:2).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마음

히르쉬는 이 수송아지의 모습을 영적 지도자에게 적용합니다.

지도자는 성숙해야 하지만,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일조차 반복과 습관으로 변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젊은 수송아지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충분히 성숙하되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자신의 길을 다시 살피는,
젊은 성숙함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다

동일시
IDENTIFICATION



제물과 나를 잇는 동일시의 표시

01

손을 얹는 행위

단순한 접촉을 넘어

죄를 범한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만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I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II

“이 제물의 생명이 곧 나를
대신한 생명입니다.”

02

동일시와 은혜

죄의 무게와 대신 주어진 생명

안수는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시였습니다. 죄인은 제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허락하셨다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제사는 장차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THE LIFE GIVEN FOR US

수송아지의 피가 보여주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 레위기 4장 5절



HEBREW KEYWORD

חַיִּים
하임 (생명)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피는 제물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01

완전하지 않은 제사장

대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죄를 위해서도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02

대신한 생명, 다가를 성취

수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의 생명을 대신하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장차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줍니다.

휘장 앞에 피를 일곱 번 뿌리는 이유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 레위기 4장 6절



01

거룩의 경계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죄는 개인의 삶만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까지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02

교제의 회복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로 인해 막힌 교제의 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03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20)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다

막혔던 기도와 교제의 회복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 레위기 4장 7절



향 · 기도



뿔 · 능력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8) 또한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구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PRAYER

회복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가 흐려지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사명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로 막힌 기도의 자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죄는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은혜는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ENERGY · DESIRE · DIRECTION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 드리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떼어내되...”

— 레위기 4장 8~9절



폐기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한 전환

기름

삶의 에너지

+

콩팥

내면의 방향

→

제단

거룩한 목적을 이룸

제단 위에 남겨진 것

속죄제에서 다른 고기와 내장 등은 진영 밖에서 불사른 데 비해, 기름과 콩팥은 따로 떼어 번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01

에너지와 방향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름은 삶의 에너지를 가리키며, 콩팥은 그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욕망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02

호르던 욕망과 힘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호르던 욕망과 힘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RE

CREATION

속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죄에 사용되던 에너지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시 사용하시는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심판의 불이 타오르지만 그곳은 ‘정결한 곳’ 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지니라.”

— 레위기 4장 11~12절



끝처럼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는 회복

01

진영 밖

파괴가 아닌 정결

제 물이 불태워지는 장소는 진영 밖이었지만, 성경은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죄로 오염된 것이 불태워지는 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은 단순한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태워 없애시지만 죄인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불태워진 재는 끝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결한
자리가 됩니다.

02

성문 밖

대신 서신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히 13:12).

진영 밖 → 하나님께로

THE WAY BACK

우리가 버려져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영적 청소

나의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01

속죄제는 죄를 지은 개인만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영향을 받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02

히르쉬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영적 중심인 성소에 오염을 쌓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죄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교제가 위협받게 됩니다.

고백의 방향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오염된 공동체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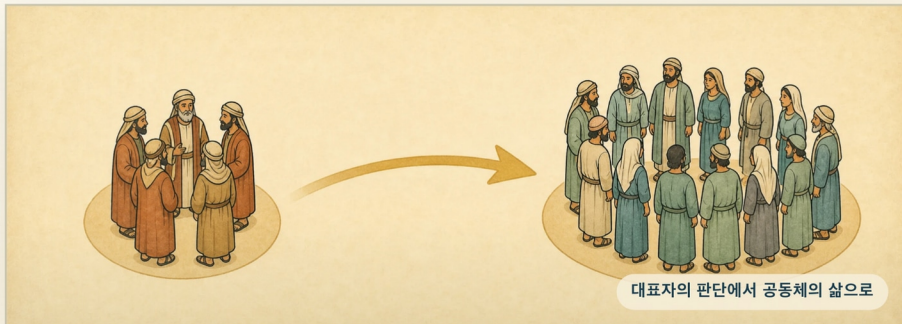
나의 말 한마디와 작은 타협, 숨겨진 욕망은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이웃에게 파문을 일으킵니다. 속제죄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룩한 청소입니다.

온 회중의 속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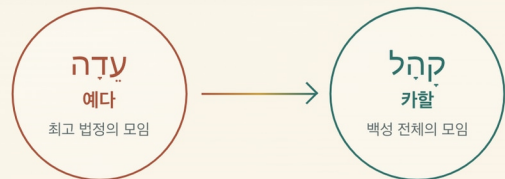
한 지도자의 오판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 레위기 4장 13~14절



이 본문에는 ‘회중’이라는 말이 두 종류의 히브리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다 (עדה)이고, 두 번째는 카할(קהל)입니다.



두 회중, 하나의 공동체적 책임

랍비 히르쉬는 첫 번째 회중(예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율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최고 법정, 곧 산헤드린과 연결합니다. 두 번째 회중(카할)은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전체 백성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웬함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 9장에서 회중(예다)의 오판이 공동체에 미친 사례로 설명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도 회중(예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결정하거나 재판하면, 그 잘못의 결과는 백성 전체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드러났을 때 몇몇 지도자가 비밀리에 문제를 처리하고 끝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죄를 직면하고 속죄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Hirsch, pp. 129-130; Wenham, pp. 98-99; 여호수아 9장; 민수기 15장 32절

오늘의 적용: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 영향은 나라 전체에 미칩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소수의 사람이 은밀히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분별의 자리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은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지도자의 무지와 오판이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의 방향이 됩니다

권력이 아닌 책임

공동체의 생명을 맡은 자리

그러므로 리더십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01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가?”

02

“내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리더십의 권위는 질문을 멈추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비추고, 잘못을 발견했을 때 돌이키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말씀 ○ 돌이킴 ○ 겸손

“나는 몰랐다” 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지도자의 판단을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뒤에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책임을 떠넘길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15 지도자의 판단 → 16 공동체의 책임

지도자의 오판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따라
걸었던 공동체 전체가 그 결과 앞에 함께 서게 됩니다.

함께 속했다면

우리

기쁨뿐 아니라 아픔과 책임도 함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기쁨뿐 아니라 아픔과 책임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는 말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리

침묵과 동조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익명성 뒤에 숨은
우리의 태도도 살피십니다. 잘못된
구조에 침묵하고 동조한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발견했을 때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속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죄를 덮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큰 잘못이 드러나면 “밖에 알려지면 부끄럽다” 는 이유로 조용히 덮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이 퍼집니다.



감춤에서 직면으로 · 균열에서 회복으로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잘못을 공개적으로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세상에 자극적으로 폭로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체면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실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족장의 속죄제

가장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 레위기 4장 22절



높이 세워진 자리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

01

높이 세워진 사람

‘족장’은 히브리어로 나시 (נָשִׂיא)라고 합니다.

지도자, 통치자, 작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 나시를 왕과 연결합니다. 나시는 ‘들어 올리다’, ‘짐을 지다’라는 의미의 나사와도 관련됩니다.

왕은 사람들 위에 높이 세워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습니다.

02

말씀 앞에 낮아짐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백성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지도자가 실수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03

강함의 바른 방향

왕은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수염소의 강한 성향은 지도자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고집과 야망으로 변합니다.

지도자의 강함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의 짐을 지기 위한 강함이어야 합니다.

일반 백성의 속죄제

평범한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01

레위기는 대제사장과 왕, 은 회중뿐 아니라
평범한 백성의 죄도 자세히 다룹니다.

대제사장 — 왕 — 은 회중 — 한 사람

동일한 책임

순종의 책임은 지위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은 평범한 한 사람의 영혼도 대제사장과 왕만큼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선택의 무게

보이지 않는 선택도 공동체에 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반대로 아무도 모르는 작은 죄라 해도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LL
BEFORE GOD

속죄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만 낮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존귀하며, 모든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속죄제의 본질은 과거 청산보다 미래의 결단입니다

속죄제는 단지 과거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욕망

의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피가 제단에 발리고 기름이 불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욕망, 행동과 의지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세 가지 고백

속죄의 참된 열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01 “다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02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과녁으로 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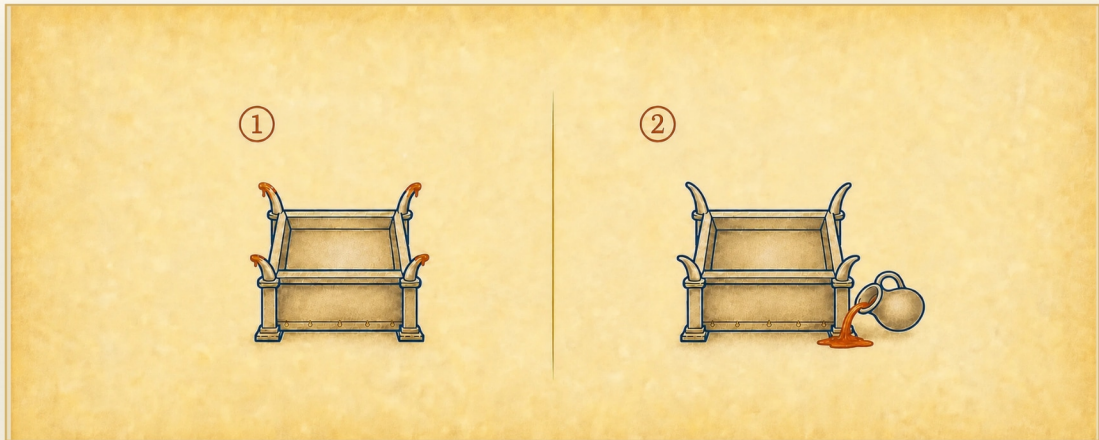
03 “내 삶과 욕망을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쏟는 의미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 레위기 4장 30절



01

제단 뿔에 바름

속죄제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죄로 무너진 도덕적 기준을 다시 제단 뿔에 고정하듯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02

제단 밑에 붓기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모두 붓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전제처럼 하나님께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딤후 4:6)

FOUNDATION

삶을 붓는 자리

제단의 ‘밑’은 히브리어로 **예소드(기초)**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고전 3:11), 모든 삶을 반석과 터전이 되시는 예수님께 헌신하여 붓는 고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속죄제의 3가지 경우

01 보고도 침묵함

02 모르게 물들어감

03 생각 없이 말함

01

첫째, 해야 할 말을 외면할 때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죄

방관이라는 이름의 불의



본문이 비추는 죄

침묵은 때로 중립이 아닙니다

증언해야 할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 증언만큼 공동체의 정의를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겨진 선을 행하라고 부르십니다. 해야 할 말을 외면하는 침묵은 **부작위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

“괜히 얹히지 말자” 는 마음

직장의 부조리, 친구 사이의 따돌림,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보면서 피곤해질까 봐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나의 침묵 때문에 누군가가 홀로 남고 정의가 무너지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질문

지금 내가 말해야 할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신중하게 말하고, 악한 사람 곁에 서는 용기가 소극적인 착함을 ‘용기 있는 의로움’으로 바꿉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속죄제의 3가지 경우

01 보고도 침묵함

02 모르게 몰들어감

03 생각 없이 말함

02

둘째, 무엇에 닿는지 살피지 않을 때

부정한 것에 무심코 접촉한 경우

주변 환경에 몰들어 가는 영적 무감각



랍비 히르쉬의 시선

죽음의 기운은 생명의 감각을 막습니다

랍비 히르쉬는 사체, 곧 죽음과의 접촉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통로를 가리고 무기력함을 전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더 큰 위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은 반복해서 접촉하는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의 장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라는 익숙함

자극적인 콘텐츠와 냉소적인 말, 타인을 혐오하고 깎아내리는 문화가 매일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가치관도 반복해서 접하면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한 것과의 접촉’입니다.

돌아오는 질문

요즘 무엇이 내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합니까? 몰랐다는 사실에 머물지 말고, 깨닫는 순간 멈추어 생명과 정결의 자리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속죄제의 3가지 경우

01 보고도 침묵함

02 모르게 물들어감

03 생각 없이 말함

03

셋째, 말의 무게를 잊을 때

생각 없이 맹세한 죄

내뱉은 말의 가치를 잃어버린 가벼움



본문이 비추는 죄

말은 사라져도 책임은 남습니다

입술로 경솔하게 뱀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말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도구이기에, 감정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은 언어도 속죄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의 장면

“훗김에 한 말이야” 라는 핑계

기분이 좋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화가 날 때는 지울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가벼운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질문

내 말이 오늘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까? 내뱀은 말에 책임을 지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핵심 메시지

보다 ○ 났다 ○ 말하다

세 사례를 잇는 한 가지 부르심은 ‘깨어 있음’입니다. 보고도

외면했는지, 세상의 혼탁함에 무감각하게 젖었는지,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지 돌아봅시다. 고대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깨닫는 순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이어집니다.

누구도 가난 때문에 속죄의 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속죄제물을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 레위기 5장 7절



어린양, 비둘기 한 쌍, 곡물 고운 가루

닫히지 않는 문

가난이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속죄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메와 타호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 레위기 5장 2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어 버린 영혼의 상태

일시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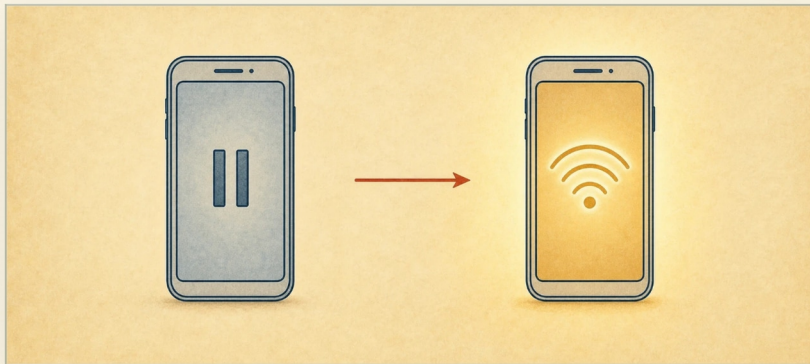
타메(טָמֵא): 부정 한
상태

→ 회복

타호르(טָהוֹר): 정결한
상태

우리는 ‘부정하다’는 말을 들으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씻어야 하는 위생 문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르쉬가 설명하는 타메의 개념은 몸이 더러워진 상태보다,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 의지가 약해지고 생명의 활력이 막힌 상태에 가깝습니다.



먹통이 된 기계

타메는 스마트폰이 ‘먹통’이 된 상태와 비슷합니다. 기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신호가 막히고 작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닌 영혼

사람 자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과 영혼의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선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영혼에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과 같습니다.

왜 죽음과 사체를 접하면 타메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획하고 선택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마주하면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는구나.”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은 인간에게 깊은 무기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던 존재가 멈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의지와 희망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습니다.

랍비 히르쉬는 이처럼 죽음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유의지와 생명의 의욕이 위축된 상태를

타메(부정)의 중요한 의미로 보았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진단입니다

타메는(부정하다) “너는 더러운 존재다” 라는 정죄가 아닙니다. “지금 네 영혼이 죽음의 힘에 눌러 멈추어 있다” 는 진단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멈춘 영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01

재부팅의 비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재부팅입니다. 재부팅은 기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무기력에 눌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

01

“너는 죽음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02

“너는 여전히 선을 선택할 수 있다.”

03

“너는 내가 존귀하게 지은 존재다.”

04

“이제 다시 일어나 시작하자.”

속죄제는 더러운 사람을 꾸짖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힘에 눌려 멈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작동하게 하십니다.

부주의도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깜빡함” 이나 “습관적
실수” 중에는 영적인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RESULT

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죄의 결과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에서
덤추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말실수, 약속을 잊는 것, 말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등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결과를 인정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지함도 완전한 면책 사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해서 죄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 영적 미성숙
- 말씀 공부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
-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비판과 검토 없이 받아들임

02 잘못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 01 잘못을 인정한다.
- 02 이전 행동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바로잡는다.
- 03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배운다.
- 04 같은 실수를 피하도록 습관과 환경을 바꾼다.

잘못 배웠어도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레위기 4:13-21은 온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경우를
다룹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변명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Tim Hegg, p. 30)



01

성도는 설교나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대조해야
합니다.

02

존경하는 지도자의 말이라도 무비판적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03

공동체의 다수가 따르는 관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04

잘못된 가르침을 발견하면 지도자뿐 아니라
그것을 따랐던 공동체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공동체의 도움을 받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죄와 오류는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이 말씀은 목회자, 교사, 장로, 부모와 공동체 지도자에게 적용됩니다.



○ 지도자의 개인적인 죄도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교리와 해석은 많은 사람을 부지중의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 지도자의 권위가 클수록 더 엄격한 검증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 지도자를 세울 때 재능이나 인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교사에게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두 가지

01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살아
있으며 성장하는 관계

0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진지한
연구

영적 열심만 있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은 풍부하지만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가 없다면 교만하거나 형식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Tim Hegg, p. 30)

예배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에서 출발한다

레 5:5

웬함은 레위기의 “속죄” 제사 순서 중 죄의 고백(레 5:5)이 오늘날 예배에도 하나의 신학적 모형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이나 간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01

죄의 고백



02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



03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드림



04

찬양과 간구

속죄제의 제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나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확신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자신을 드리며 찬양하고 간구합니다.



속죄제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죄의 값을 처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의 효과는 부지중에 지은 죄에 해당되었고, 그 밖의 죄는 일 년에 하루 속죄일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한 어린양은 자신의 피로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르시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무리 조심하고 영적 울타리를 세워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속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표적을
벧나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열었다.
이제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다시, 하나님의 과녁을 향해 걸어갑시다.